

5월 29일(월) / 딤전4-6장

▶**내용요약:** 디모데전서 4장은 먼저 이단을 경계하도록 권면하면서 디모데에게 젊은 목회자로서 경건에 이르는 연습에 진력하고 자신의 성숙을 나타낼 수 있도록 노력해야함을 강조한다. 5장은 성도들을 대하는 목회자의 태도를 다룬다. 특히 교회 안에 있는 과부에 대한 문제를 상세히 언급한다. 6장은 종들의 의무를 다루고 부자가 되려는 세상적인 욕심과 돈이 가져오는 파괴적인 결과에 대해 경고한다. 마지막으로 이단에 대해 조심할 것을 다시 당부한다.

▶**질문:** 일반약의 뿌리가 되며 탐내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6장)

▶**생각하기:** 바울은 디모데에게 좋은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자질과 노력들을 당부한다. 특히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고 하면서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4:8)고 한다. 경건이야말로 목회자에게 요구되는 가장 필요한 덕목임을 강조하는 것이다. 우리는 경건의 훈련을 하고 있는가? 지식만이 아니라 **경건 훈련으로 단련된 십자가군병들이 되도록 하자!**

6월 1일(목) / 딤1-몬1장

▶**내용요약:** 디도서는 바울이 그레데섬의 목회자인 디도에게 보내는 목회서신으로 교회의 조직, 장로의 자격과 감독의 직무에 대해 가르친다. 1장은 디도에게 문안하면서 그가 그레데에서 해야 할 일과 감독의 자격에 대해 기술한다. 2장은 교회 여러 계층에게 주는 교훈을 맞춤형으로 제공한다. 3장은 사회생활에서 성결할 것을 가르친다. 빌레몬서는 바울이 빌레몬에게 보내는 편지로 오네시모의 입장을 탄원하면서 용서를 부탁한다.

▶**질문:** 바울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이라고 지명했던 사람은 누구인가?(몬1장)

▶**생각하기:** 바울이 디도에게 성도들을 어떻게 섬기고 목회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2장 말씀은 그의 **목회의 백미**를 보는 듯하다. 노인 남녀와 젊은 남녀가 가지는 특징을 정확히 진단하면서 목회자가 그들을 어떻게 대하고 지도해야 하는지를 알려준다. 바울이 얼마나 세심하게 성도들을 섬겼는지를 알 수 있는 부분이다. 일방적이 아닌 **쌍방향, 맞춤형 사랑과 섬김**이 필요하다.

6월 4일(주일) / 히8-10장

▶**내용요약:** 8장은 모세를 통해 주어진 옛 율법이 예수그리스도의 새 언약으로 대체됨을 설명한다. 지상의 성소와 하늘의 성소가 대조되면서 모세가 세운 지상의 성소는 하늘의 성소를 상징하는 모형임을 밝힌다. 9장은 옛 언약과 그 예법을 소개하면서 그것에 근거한 희생 제사의 불완전성에 대해 설명한다. 이어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그리스도가 드린 제사가 소개되면서 이 제사가 지상의 제사장들이 드렸던 제사들보다 얼마나 탁월하고 완전한 제사

5월 30일(화) / 딤후1-2장

▶**내용요약:** 디모데후서는 바울의 마지막 서신서로 그가 순교하기 직전 기록했으며 복음을 끝까지 지킬 것을 권면한다. 1장은 디모데의 신앙 전통을 언급하면서 복음의 시작과 내용을 다룬다. 2장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을 것과 고난 후에 오는 영광에 대해 말씀한다. 이어 복음전도자가 가져야 할 마땅한 자세를 좋은 군사, 경기하는 자, 수고하는 농부의 3가지 비유를 통해 설명한다.

▶**질문:** 바울을 자주 격려하였고 로마에 있을 때에 그를 찾아 만났으며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사람은 누구인가?(1장)

▶**생각하기:** 바울은 최후의 서신서로 디모데후서를 기술했다. 이를 통해 바울에게 디모데가 얼마나 중요한 인물이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라”(1:4)고 말하는 것으로 보아 순교를 앞두고 있는 바울이 생각만 해도 기쁨이 되는 사람이 바로 디모데였음을 알게 된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이토록 기쁨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인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인정받는 **신앙의 계승자들**이 되자!

6월 2일(금) / 히1-4장

▶**내용요약:** 히브리서는 유대인 성도들을 대상으로 기독교신앙에 대한 배교를 경고하고자 기록되었다. 기록자는 누구인지 모른다. 1장은 하나님 계시의 절정이 그리스도임을 드러낸다. 2장은 그리스도가 천사와 만물보다 탁월한 분으로서 구원을 위해 우리와 같은 혈과 육을 가지셨음을 설명한다. 3장은 모세와 비교하면서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확인하는데 모세는 종인 반면 그리스도는 아들로써 섬겼음을 대조한다. 4장은 안식의 약속을 언급하면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힘쓸 것을 권면한다.

▶**질문:** 괄호를 채우세요. “궁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4장)

▶**생각하기:**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라”고 확인한다. 예수님은 성육신을 통해 우리와 같은 혈과 육을 가지셨기에 인간의 고통과 고민이 무엇인지를 잘 이해하신다. 누구도 이해하지 못하는 나의 고통과 고민을 **주님은 모두 알고 계시고 함께하신다!**

인지를 설명한다. 10장은 먼저 율법에 의한 제사제도의 약점을 기술한다. 이어 율법의 모든 제도의 실체가 되시는 그리스도가 성육신하신 목적을 설명한다. 이를 통해 죄사함을 위해 더 이상 레위기적인 제사가 불필요함을 알려준다.

▶**질문:** 괄호를 채우세요.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으로 말미암아 살리라”(10장)

5월 31일(수) / 딤후3-4장

▶**내용요약:** 3장에서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세에 일어날 혼탁함 가운데서 인내하며 경건을 지킬 것을 권면한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성경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4장에서는 바울이 자신의 마지막을 예견하면서 이제는 디모데가 복음전도자의 사명을 계승해야 함을 확인한다. 마지막으로 자신과 함께하는 동역자들의 상황과 안부를 물으며 축복으로 편지를 마친다.

▶**질문:** 괄호를 채우세요. “모든 ()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3장)

▶**생각하기:** 바울은 디모데에게 최후의 부탁으로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4:2)고 한다. 자신의 인생 마지막을 예견하며 복음전파의 사명이 가장 고귀하고 아름다운 사역임을 회고하는 바울, 그리고 이 고귀한 사명을 디모데에게 부탁하는 모습을 통해 이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사명은 **복음전파**임을 깨닫게 된다.

6월 3일(토) / 히5-7장

▶**내용요약:** 5장은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자격과 아론 계열의 제사장직을 비교하면서 그리스도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아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음을 설명한다. 6장은 신앙의 성숙과 소망 중에 오래 참고 인내할 것을 권면한다. 7장은 멜기세덱이 누구인지를 상세히 밝히면서 그가 그리스도의 모형임을 드러낸다. 이어 레위 제사장들과 그리스도를 비교함으로써 그리스도야말로 대제사장으로 가장 적합한 분이심을 설명한다.

▶**질문:** 살렘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며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빌었던 인물은 누구인가?(7장)

▶**생각하기:** 히브리서를 받는 수신자들은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지 상당히 오랜 시간이 지난 사람들이었다. 따라서 당연히 “하나님말씀의 초보”에서 벗어나 장성한 자로서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어야 했지만 아직 어린아이와 같이 젖을 먹어야 하는 단계에 남아있었다. 우리는 과연 신앙의 진보를 통해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고 있는가?

▶**생각하기:**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10:19)라는 믿음의 고백을 한다. 예수님 이전 제사는 모두 죄를 기억나게 하고 이후에 죄를 지으면 반복적으로 다시 제사를 드려야 하지만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드린 제사는 완전하고 영원함을 상기시킨다. **예수의 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의 보혈(피)**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천이요 능력**이다.